'2026학년도 전북지역 수능 만점' 전주한일고 이하진 학생

"선생님들의 도움 컸다… 공부 균형 맞추려 노력"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주한일고 3학년 학생인 이하진 군이 전 과목 만점을 받았다. 이에 이하진 군으로부터 수능 만점과 관련, 소감과 향후 포부를 들어본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지난 5일 전주한일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자 이하진(가운데) 학생이 친구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수능 시험 대비 노하우 알려줘… 깊이 감사드려
학력향상 도전학교 프로그램 통해 실전 감각 익혀"

Q. 수능 만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물론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대했으나 다 맞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기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제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끝까지 편안히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은 것은 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의 체계적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경력이 오랜 훌륭한 선생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수능 시험에 대비한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셨고, 또 젊은 선생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3년간 학교생활에서 많은 도움 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Q. 가채점 결과 만점을 예상했을 텐데, 시험이 끝난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 가채점 기준으로는 만점이었지만, 시험을 잘 봤기에 오히려 마킹을 실수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서, 게임, 운동 등 공부하느라 한동안 미뤄뒀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Q.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최상위권이었을 것 같습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15등에서 25등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고등학교 입학 성적도 36등으로 최상위권이라고 부를 만한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Q.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 내신과 수능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내신의 경우 수업을 듣기 전 교과서를 미리 한 번 가볍게 읽어보며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실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신 대비 기간에는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친구들에게 풀려보기도 했습니다.

내신 기간 이외에는 모의고사 준비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고, 답을 맞히더라도 더 좋은 풀이가 있는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공부했습니다.

Q. 성적 하락 등 슬럼프를 겪지는 않았는지.,그럴 때 극복 방법은 무엇이었는지요?

- 무너지지 않으려면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고, 내가 믿는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그때 그 순간에 충실하며 공부하다 보니 별다른 슬럼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Q.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한 성적 향상 프로그램은 도움이 됐습니까?

- 학력향상 도전학교를 통해 실시한 주말 모의고사 프로그램에 매주 참가하며 시간에 맞춰 문제풀이를 해 보는 경험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능 한 등급올리기 90일 프로젝트에 3학년 2학기 때 참가하여 학교에서 제공한 실전 모의고사 문제지를 많이 받을 수 있어 탐구 영역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미래 의학도로서 갖춰야 할 자질을 계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의 화학 실험캠프에서 나일론 실험, 크로마토그래피 등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방과 후,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어떻게 활용했는지요?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나한테는 공부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공부할 때 하고 쉴 때 쉬는 게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Q.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학교에서 했던 특별 활동이 있으셨는지요?

-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교내 텃밭 가꾸기를 2년간 진행했습니다. 오이, 수박, 옥수수 등을 길러 친구와 선생님께 나누기도 하고,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얼마 전 수능을 마친 후, 봄이 되면 후배들이 더 아름다운 학교 교정에서 즐겁게 학교 생활할 것을 기대하며, 친구들과 함께 튤립을 심기도 했습니다.

Q.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공부방법'이 있었는지요?

-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수학 교과서를 한 번쯤 읽어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교육과정에 기초해 문제를 내며, 교과서는 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시험을 보는데 출제 범위와 출제 의도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물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과서만 보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지만 공부하면서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면 체력이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요?

-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이 끝나기 20분쯤 전 미리 나와서 운동장을 돌았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니 잠도 잘 오고 체력 유지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Q. 앞으로의 진로 계획이나 관심 분야는 무엇인지요?

- 의대에 지원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호흡기내과 의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나 법에도 관심이 있어 스스로 더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Q. 수능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 수능 공부하다 보면 누구든지 어느 순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 시기가 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아보며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Q.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선생님,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 1년 동안 아낌없이 도움 주신 담임 선생님과 언제든 나를 믿어준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고, 친구들도 수능 공부하느라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전주한일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학교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성탄 기념 점등 예배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지난 4일 대학 본관에서 '2025 성탄 기념 점등 예배'를 열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역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예배는 연말을 맞아 전주대학교가 매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 행사로,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설교는 선교봉사처 이진호 특임교수(목사)가 맡아 누가복음 2장 8·12절을 본문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교수는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함께 모인 우리가 캠퍼스와 지역사회에서 빛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했다.

말씀과 찬양 후 이어진 점등식에서는 본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조형 조명들이 일제히 밝혀지며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순간 로비는 성탄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고, 교직원들은 환한 조명 아래 함께 찬양을 부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사명을 이어갈 뜻을 다졌다.

전주대학교의 이번 성탄 기념 점등 예배는 단순한 캠퍼스 행사를 넘어, 지역 교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 시민들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장이 되었다.

전주시 곳곳에서도 성탄 트리 점등과 찬양 축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심정민 교수 2025년 전문대학인상 수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지적토목학과 심정민 교수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선정하는 '2025년 전문대학인상(교원 부문)'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4일 서울 숭의여자대학교 마펫기념 숭의음악당에서 열렸다.

심 교수는 1999년 지적과 개설을 주도한 이후 27년간 교육과정 고도화, 실습환경 구축, 산업체 협력 체계 강화 등 전문대학 기반의 실무 교육 모델을 확립해 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215명의 공무원·공기업 합격자 배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전국 최다 합격, 전북 14개 지자체에 120명 지적 공무원 배출 등 눈에 띄는 성과로 지역사회와 산업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정 공간정보 특성화 거점대학 운영을 총괄하며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현장 중심 교육을 체계화한 점도 이번 수상의 주요 근거로 꼽힌다. /장은성 기자

정전기를 전력으로 '나노 발전기' 혁신

전북대 김태욱 교수 연구팀 성과 세계 학계 '주목'
단결정 구리 나노시트 활용해 전력밀도 6배 ↑

전북대학교 김태욱 교수(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JBNU-KIST 산학연융합학과) 연구팀이 일상생활 속 정전기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마찰전기 기반 나노 발전기(Triboelectric Nanogenerator)'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교수팀은 부산대학교 이승기 교수(재료공학부) 연구팀과 함께 '구리 나노시트 필름(Cu Nanosheet Film)'의 다공성 구조를 활용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소자 구조를 개발했다.

이 연구는 김대홍 박사과정생(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이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재료과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 'Advanced Materials'(IF=26.8, JCR 상위 2.3%) 최신호에 게재됐다. 나노소재를 에너지 수확 장치에 응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김태욱 교수팀이 개발한 단결정 구리 나노시트는 가로·세로비가 매우 높은 2차원 구조로, 필름 형태로 제작하면 내부의 약 66%가 빈 공간으로 구성된 계층적 다공성 구조(hierarchical porous structure)를 형성한다. 연구팀은 이 빈 공간에 실리콘계 고분자인 PDMS(Polydimethylsiloxane) 용액을 코팅해 필름 내부의 미세 공극(voids)을 채우도록 함으로써 전극과 유전체의 접촉면적을 획기적으로 확장시켰다.

이 독특한 구조를 마찰전기 나노발전기에 적용한 결과, 구리 나노시트 전극과 PDMS 유전체가 결합된 전극·유전체·전극 구조가 유전체 내부의 미세 커패시터로 작용하면서 정전용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 결과 기존 구리 박막 기반 발전기 대비 약 590% 높은 전력 밀도를 달성했으며, 1만회 이상의 반복 작동에도 출력 저하가 전혀 없는 뛰어난 내구성을 보였다.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유사 연구 중 가장 우수한 안정성으로 평가된다.

또한 5,000회 이상의 반복 동작 후에도 30dB 이상의 전자파 차폐(EMI SE) 성능을 유지했고, 5V의 낮은 전압에서도 59.4℃까지 도달하는 고효율 발열 특성을 구현했다. 즉, 단일 구조 내에서 에너지 수확, 전자파 차폐, 유연 발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자가발전 플랫폼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우즈벡 세계언어대학과 복수학위제

양오봉 총장-일험존 총장 양교 교류협력 강화 합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난 4일 우즈베키스탄 국립세계언어대학(Uzbekistan State World Languages University, 총장 일험존 투크타시노프)과 국제 교류협력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복수학위제 시행 등 교육·연구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양오봉 총장과 일험존 투크타시노프 총장은 서울서 열린 '제2회 한-우즈백 대학총장 포럼'에 참석해 별도의 만남을 갖고, 양 기관 간 국제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복수학위제 시행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일험존 투크타시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립세계언어대학 총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국제 교류협력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2+2 복수학위제'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전북대생들에게는 폭넓은 국제교육의 기회를, 우즈벡 세계언어대학 학생들에게는 우수한 한국 고등교육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우즈벡 세계언어대학교는 우즈베킨스탄 외국어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기관으로, 한국어와 영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교사 양성 중심대학이다. 한국어학과 등 총 47개의 학과(대학원 포함)에 2만4,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유·보·초가 함께 만드는 전북형 이음교육 확산

전북교육청, 이음교육 운영 결과 나눔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일 전주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 유·보·초 이음교육 운영 결과 나눔'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간 이음교육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과정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음교육이란 5세 유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놀이중심 언어교육, 1학년 통합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연계, 범교과(환경, 인성, 안전 등) 연계 수업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례 나눔에는 이음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선도해 온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유·보 간 협력 활동 사례 △어·초 간 교육 연계 프로그램 △유·초 간 연계 등 이음교육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영재성 검사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미래인재 조기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2026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영재성 검사를 지난 6일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영재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2026학년도부터 수준 높은 영재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영재성 검사를 통해 영재교육에 적합한 학생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성 기자